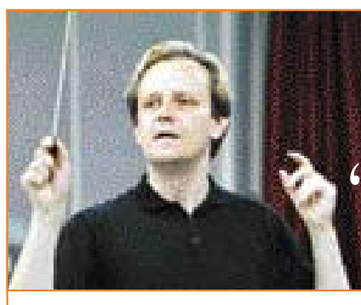

전남대서 강의하는 마르친 네시오워프스키 교수

"좋은 연주는 자신감·열정의 산물"

폴란드 쇼팽음악원 출신 … 광주·전남 첫 외국인 음대 교수

5월 3일 데뷔 무대 … "지역 연주자들과 음악 교류 나누고파"

"똑같은 데 다시. 스타카토로 연주해 주세요."

지난 20일 전남대 예술대학 관현악합주실. 50여명의 학생들은 긴장한 얼굴로 슈만 교향곡 4번 연주에 몰두하고 있었다. 짧은 한국말과 영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는 폴란드 출신 마르친 에드먼드 네시오워프스키(38) 교수. 지난 3월부터 지휘와 관현악 합주를 가르치고 있는 마르친 교수는 전체적인 연주 흐름을 짚어주고, 개별 악기 연주자들을 일일이 체크하며 수업을 진행했다.

마르친 교수는 지역의 첫 외국인 음악과 교수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전임교수로 임용된 경우는 마르친 교수가 처음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언제나 즐겁죠. 학생들이 자기 또래에서는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아직은 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외국인이고 영어로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엇보다 아쉬운 건 자신감이 좀 없다는 점이예요. 자신감을 갖고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 좋은 연주가 나요죠."

첼리스트 어머니와 피아니스트 누나 사이에서 자란 마르친 교수는 7살에 바이올린을 시작으로 비올라를 배웠고 15살 때부터 지휘를 공부했다. 쇼팽음악원을 졸업하고 쇼팽음악대학에서 지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폴란드국립오페라 대극장 객원지휘자를 거쳐 쇼팽음악대학 객원교수로 활동했었다.

특히 마르친 교수가 지난 1997년 창단, 음악감독을 맡은 포들라시 오페라 필하모닉이 2007년에 녹음한 폴란드 작곡가 지그문트 스토요프스키의 음반은 영국 그라모폰이 뽑은 최고의 CD로 선정되기도 했다.

마르친 교수는 오는 5월 3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전남대 예술대학 관현악정기연주회에서 데뷔 무대를 갖는다. 슈만의 4번 교향곡과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등이 레퍼토리다. 20일에는 전남대 강당에서 5·18 기념음악회로 모짜르트의 '레퀴엠' 등을 무대에 올린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항상 다른 파트의 연주에 귀 기울여야 해요. 대화를 할 때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말하는 것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좋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언어를 습득할 때 자주 말하는 게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죠."

마르친 교수는 지난해 전남대의 임용 제안을 받고 '광주'에 대해 공부했다. 비엔날레가 열리는 도시라는 것을 알았고 '5·18'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다. 부임하자 마자 전남대 어학원에 등록한 마르친 교수는 "한국어가 여자 친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어 공부에도 열심이다.

"5·18은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비극이었지만 한국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는 것을 알게 됐죠. 우연찮게도 1980년은 폴란드 바웬사 전 대통령이 자유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민주화의 해이기도 합니다. 5·18 연주회에 참여하게 된 것도 저에게는 큰 의미죠."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을 두 차례 관람한 마르친 교수는 "객원지휘자가 참여했던 첫번째 연주와 비교할 때 상임지휘자가 지휘했던 두번째 공연은 같은 교향악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상적인 연주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공연장에서 이 연주를 들었다면 더 좋은 연주였을 것 같다"며 광주문예회관의 음향 상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회가 닿는다면 학교 뿐 아니라 지역의 연주자들과 만나 음악적 교류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양한 음악그룹의 객원지휘자로 참여해 무대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듯 하구요."

마르친 교수는 광주 문화계를 풍요롭게 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 첫 음악학과 외국인 교수인 전남대 마르친 에드먼드 네시오워프스키가 20일 전남대 예술대학에서 관현악 실습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법정 스님 49재…삶 조명 책 '봇물'

불교계 "스님의 뜻 잘 받들고 있는지 유감"

'무소유' 법정 스님이 입적한지 49일.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재(28일 송광사)에 맞추기라도 한 듯 그를 기리는 책들이 소설이나 전기 등 다양한 형태로 쏟아져 나왔다.

이 책들은 "자신이 쓴 책들을 절판하라"는 스님의 유언 후 나오는 것들이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우선, 눈길을 끄는 책은 보성 출신으로 불교적 사유가 배어 있는 소설을 여러 권 내온 정찬주씨가 쓴 '소설 무소유'(열림원 펴냄)이다.

소설은 법정 스님이 전남대 상대 시절 출가를 결심하고 입적할 때까지를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재구성했다.

특히 법정 스님 사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소유' 사상의 단초를 스님이 언제, 어떻게 접하게 되었으며 이를 또한 어떻게 자신의 '법'으로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이를 대중들과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불교와 역사 분야 소설을 주로 써온 백금남씨가 5년간 집필했다는 '법정-맑고 향기로운 사람'(은행나무 펴냄) 역시 법정 스님의 출가와 사회참여활동, 입적까지를 그려낸 소설이다.

출판사측은 책은 법정 스님이 30대에 쓴 시 4편을 발굴해 수록, 산문인 뿐만이 아니라 시인이었던 법정스님을 재조명해 차별화를 꾀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전 전문 작가 장혜민씨가 법정 스님의 일대기를 재구성하고 산문집 내용도 곁들인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행복'(산호와진주 펴냄)과 스님이 이끌던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변택주 이사가 펴낸 '법정 스님 숨결'(큰나무 펴냄) 등도 출간됐다.

하지만, 이 책들이 법정 스님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지, 불교계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책들이 대체로 법정 스님이 남긴 여러 산문집과 법문들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차별성도 없다는 것.

조계종의 한 스님은 "소설의 경우, 법정 스님의 생애를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복원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심지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마저 다분한 책들도 있다. 이와관련 '맑고 향기롭게' 관계자는 "한 출판사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18 30주년 '오늘을 보는 시선' 전

5월12일까지 광주롯데갤러리

광주롯데갤러리는 5·18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오는 5월12일까지 '오늘을 보는 시선'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최요안, 이정기, 오용석, 정인선, 윤준영, 김용철씨 등 젊은 작가들이 참여해 5·18의 가치를 조명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최요안씨는 군모를 쓴 해골, 넋이 나간 모습으로 부친의 영정을 들고 있는 어린 아이, 거리의 학살현장, 광장 앞의 무수한 군중 등을 통해 5·18의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또 정인선씨는 오색 국화를 통해 새로 피어나는 희망을 그려냈고, 오용석씨 도시의 적막감과 현대인의 불안감을 화폭에 담아냈다.

정인선 작 '가난한 사랑노래'

이 밖에 김용철씨는 인간의 폭력성, 전쟁과 기아, 생명 경시 등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했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생명과 인간의 공존 '초록메시지'전

5월26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우제길미술관은 28~5월26일 생명과 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초록메시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박태규, 김주연, 정하양, 류신, 조광석, 박일정, 주미희, 이정기, 최제헌, 최은태씨 등이 참여해 환경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김주연씨는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결하고, 흙을 넣은 뒤 고구마를 재배하는 이색 작품인 '이숙'을 선보이고, 정하양씨는 낡은 의자에 새싹을 붙여 놓은 '새싹나무'를 전시한다. 또 류신은 다양한 자연속 무늬를 선사한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린 가방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아트 톡톡-자연을 담은 에코백' 행사도 함께 곁들여진다. 문의 062-224-660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하양 작 '새싹나무'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 업그레이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복합문화관서 토론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8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에서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심재광 광주전남문화산업협의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문화산업 현황 및 발전 과제'와 '광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산업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연철 호남대 교수와 주정민 전남대 교수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이승권 조선대 교수와 김효성 KBC 기자, 정성구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양성수 (주)에넴 대표가 발제자들과 함께 종합토론을 펼친다.

이상길 진흥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광주문화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